

목포대교 경관조명 '빨간불'...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관리 주체·재정여건 이유로 반대...미추진시 국·도비 반납 우려 주민대책위 '지역 관광 발전 찬물 끼얹는 '몽니 의정' 안돼' 성명

목포시가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을 두고 목포시 의회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23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만동 일원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원 중 올해 국·도비 교부신청액인 42억875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올렸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89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비 전액을

삭감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대교 관리 주체가 익산청이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해야 하며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 사업이 목포시의회 의결을 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급기야 목포시 23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누더기 경관조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는 목포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의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목포시 23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의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목포시의회가 사업비 시비 매칭을 이유로 국비와 도비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은 관광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몽니 의정'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관광거점 도시 사업에서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누더기 경관으로 목포시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책임지고 사업이 조속히 진

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목포대교 경관조명은 지난 2012년 준공된 이후 12년이 경과 돼 시설 노후화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 투광등은 외국산 수입 자재를 사용한 기존 메탈조명으로 자체 단종이 우려돼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매년 경관조명 보수 인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고장 개소를 모두 수리하지 못하는 등 목포시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않을 땐 국·도비 반납과 향후 문제부사업에 패널티 가능성까지 따려야 할 실정이다"라며 "목포대교 경관조명은 지난 2012년 준공된 이후 12년이 경과 돼 시설 노후화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효과 '톡톡'...2만1000여개 회수

올해 5개월간 620kg

영광군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가 올해 들어 2만1000여 개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는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현금 회수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기계다.

영광에서는 만남의광장, 영광읍사무소, 옛 우시장 공영주차장(축협 하나로마트 인근) 등지에 6대가 동고하고 있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는 최근 들어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지난해까지 5개월간 무인수거자판기를 통해 재활용품 620kg, 2만1000여 개가 회수됐다. 지역민 196명이 이를 통해 현금 21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재활용품을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인식해 1개당 10원씩 적립된다. 음료수 캔(통조림 캔이나 망가진 캔 제외)이나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상표를 떼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투명 페트병은 500ml부터 2l 까지 모두 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캔가루'에 회원 가입한 뒤 무인수거자판기에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거나 교통카드(캐



영광 주민이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에 투명 페트병을 넣고 있다. <영광군 제공>

시비)를 인식하면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유가보상으로 재활용품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진도군,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주민·관광객 모두 적용 3개 운수업체와 협약

진도군이 다음 달부터 지역 농어촌버스를 무료 운행한다.

진도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도여객, 옥주여객, 조도여객 등 3개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협약을 맺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진도군민과 진도를 찾는 관광객 모두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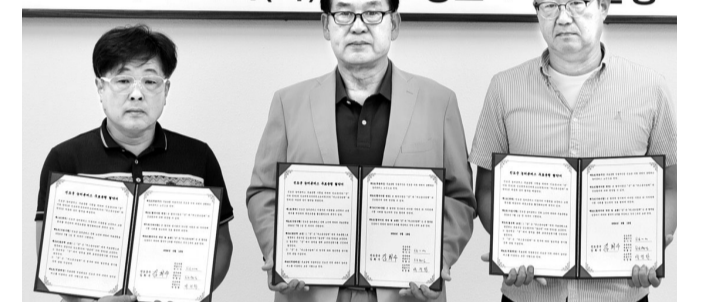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는 최근 열린 29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진도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 35개 노선, 버스 18대가 모두 무료로 운행된다.

진도군은 경북 청송군과 보화군, 완도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지역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료 운행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협약



진도군(군수 김희수·가운데)과 지역 운수업체들이 지난 18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역민의 교통복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60개 기업 참가해 400여명 채용

25일 삼호실내체육관 취·창업 정보 제공 등 다양

영암군이 오는 25일 오후 1~5시 삼호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직자의 안정적 일자리 찾기, 기업의 인재 채용 및 인력난 해소를 도울 이번 박람회는 전남인력개발원이 주관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암군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구인기업 60곳에서 400여 명의 구직자를 찾는다.

특히 신북에너지고와 구립공업고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세대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서 참여기업들은 채용서류 접수, 면접 등을 실시하고, 취업지원 기관들은 일자리 정책 안내에서 다양한 취·창업 정보 제공까지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직무 탐색관, 지원서 컨설팅관, 이미지 메이킹관 등 다양한 부스에서는 구직자들의 면접 등을 도울 예정이다.

진로 및 심리검사, 직업체험, 캘리그래피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열려 다채로운 경험 기회도 제공

한다.

영암군은 박람회 이후 채용 매칭 분석과 사업성과 평가 등 행사 효과 분석에 들어가고, 미취업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 지속 제공, 취업 의지 고취 교육 연계 등에 나선다.

박람회 참여 희망 구직자가 21일까지 (제)전남 인력개발원(061-463-9972)에 신청 접수하면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기업매칭 서비스, 기념품 제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참석 신청도 가능하고, 행사장에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목포고용센터 등에서 박람회장까지 순환버스로 운영된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목포해수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

다음달 19일까지 실시 목포·흑산도항 312개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원)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관리무역항(목포항)과 국가관리연안항(흑산도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312개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항만시설 무단 사

용 여부, 사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시정·변상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선박 입·출항 관련 사용신고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선박료와 화물료 부과·징수 관리의 적정성과 사용자 감면율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신고 누락자와 체납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영길 목포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1섬 1뮤지엄' 신안군, 이탈리아와 문화 협업



신안군 대표단이 지난 15일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를 찾아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1섬 1뮤지엄'으로 지역 활력을 꾀하고 있는 신안군이 이탈리아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협연 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신안군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과 문화 교류·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안군 대표단은 피에트라산타시 청사를 찾아 업무협약을 맺으며 두 도시 간 협력 관계를 다양한 민간 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신안군은 문화예술 사업의 하나로 '1도 1뮤지엄'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완공할 예정인 신안군립미술관 '인피니토 뮤지엄'은 신안 문화·예술 발전의 기점이 될 예정이다.

알베르토 스테파노 지오바네티 피에트라산타시 시장은 협약식에서 "신안군과 피에트라산타시는 지속해서 문화 교류를 하고 긴밀한 우정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루카 지방 토스카나주의 루카도에 있는 피에트라산타시는 세계 조각 예술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보건소·삼호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국비 33억원 확보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재탄생

영암군 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거듭난다.

영암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는 오래된 공공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친환경 사업이다. 영암에서는 영암군 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공모에서 전국 529개소 중 영암군 보건소를 포함한 12곳을 '대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12곳은 그린리모델링 지역 확산과 우수 시공 기술 도입 등을 펼치며, 지원 금액이 다른 건물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새 단장하는 영암군 보건소 전경. <영암군 제공>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두 공공 의료시설을 새로 단장해 영암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의 살아있는 장소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무안 황토갯벌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무안군은 '제10회 무안황토갯벌축제' 현장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모금 활성화 보조를 위해 지역 특색의 답례품과 기부사업을 전시·홍보한다.

잡채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 유인하는 등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따뜻한 의미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군은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방문해 온오프라인으로 10만 원 이상 무안군에 현장 기부를 완료한 참여자 전원에게 답례품 2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추가 증정할 계획이다.

추가 사은품은 무안군 특산물(지주식감장돌래래감·고구마스낵·과일젤리스트릭 등) 중 1개가 임의 제공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